

## ‘합바집 비리’ 경찰 패닉

### 양성철 광주청장 전격 대기발령... 강희락 전 청장 검찰 소환

#### 靑 감찰팀장 사직

‘합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지 지방 경찰청장급(차안감) 간부 2명이 사실상 대기발령되면서 경찰 조직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검찰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정·관계 인사 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청은 10일 ‘합바집’ 운영업자 유모(65·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성철 광주 경찰청장과 김병철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대기발령성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은 광주청장에 김학역 경찰대 학생지도부장(경무관)을 직무대리로, 울산청의 경우 현 차장을 청장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조만간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할 계획”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안되면 원상복귀 시킬 것”이라고 밝

혔다. 특히 조 청장은 “전국의 총경 이상 지휘관에게 양심고백 차원에서 ‘유씨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만났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있으면 다 적어 내라’고 했다”고 밝혀 비리 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조 청장은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연루 사실이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가혹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합바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놓고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009년 유씨로부터 경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는지, 유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8월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도피를 권유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청

장은 합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청장이 유씨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과정이 예상된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진직 경찰 총수들을 시작으로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정·관계 인사 10여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유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배견기 감찰팀장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배 팀장은 “돈 받은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 팀장은 “청와대 직인으로서 의혹 연루설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선임 행정관으로 청와대 근무 직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감찰팀장을 맡아왔다.

/최경호·이종행 기자 choice@



#### 오리의 비극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된 영암군 도포면 덕화리의 한 오리농장에서 작업반들이 오리들을 산 채로 구덩이에 밀어넣고 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최후까지 구제역 백신 신중

### 접종 확대 속 ‘76년 청정’ 이미지 무너질라 차단방역 주력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고만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다, 일부 지역 축산 협회에서도 백신 접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관련기사 2면>

전남도는 일단, 백신 예방 접종을 하게 될 경우 지금껏 지켜온 ‘청정 축산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물거품이 된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 대신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백신 접종만

으로 청정 지역 위상이 사라지는 만큼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게 전남도 속내다. 한우협회, 양돈협회를 비롯해 지역 축산농가 사이에서도 오리 지역만이라도 지켜보자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지난 2000년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차단 방역만으로 구제역을 막아낸 만큼 이번에도 백신 접종 없이 사태가 진정될 경우 지난 193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이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정 지역’으로 남게 되면 도내 축산 경

쟁력도 높일 수 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보균 가족으로 인해 청정 지역 지위가 사라지는 데다, 백신을 맞은 보균 가족에 의한 2차 질병감염 등이 우려되는 점도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구제역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초기에 선제적 대응을 해 대규모 살처분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사)한국축산농업협회 전남도지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지난 6일 구제역 확산 추세를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에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을 전남도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고 불가피하면 접종할 수 있지만 전 남지역은 아직 백신접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가 나주 공산·동강면 오리농장 2곳에서 추가로 검출되면서 도내에서 모두 6곳이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고병원성 AI가 도내 양계농가를 휩쓸고 있다.

도내 살처분·매몰 규모도 지난 2008년 74만마리(69억원)를 넘는 8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헛갈리는 가축통계

### 호남통계청 닭 2136만마리 전남도는 3148만마리 큰 차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닭 사육 마릿수가 1000만 마리가 차이가 난다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통계 결과와 조사가관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농가는 물론 정책수립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6월 1일을 기점으로 발표한 ‘2010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닭 사육 농가와 마릿수는 391가구 2136만7502수였다.

이는 호남통계청이 3000수 이상 사육하는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전 수조사를 실시하고, 3000수 미만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해 발표한 수치다.

반면 전남도가 지난해 6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한 도내 닭 사육 농가와 마릿수는 1만3000가구에 3148만6211수 호남 통계청 조사결과와 1만2609가구, 1011만8709수나 차이가 발생했다.

폐지 통계도 호남통계청과 전남도의 차이는 컸다. 폐지의 경우 호남통계청은 1354가구, 81만9278두로 발표했지만

전남도에서는 1579가구에 94만 1657두로 집계돼 225가구 12만 2379두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표본조사도 신뢰도가 95% 이상이고 지자체와는 달리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시·군에서 읍·면·동 단위로 공무원을 비롯 해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소, 돼지, 닭을 한마리 라도 키우는 농가까지 철저히 조사한 자료”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 차지사, 축산농가에 방역 협조 호소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0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 축산농가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작업에 축산농가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가축질병에 관한 최종 책임은 축산농가에 있다”면서 “농장을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단방간 해외여행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축인식은 도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식은 일체 중단할 것과 축산물 도축 가공도 도내 도축장이나 가공시설만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기존 관행 축산에서 탈피, 동물복지 차원에서 가축들의 면역을 높이고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구제역과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 중앙정부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은 “**히딩크 호텔**”과 함께 하세요

**패키지 이벤트**  
객실(1실) + 조식(2인) + 사우나(2인) ₩100,000  
해링 및 물고기 50인 이상 가능(단독 출사용)  
침실 및 각종 세미나 환영(대 중 소 연회장 원배)  
행사 메뉴: 양식, 한식(전골·탕), 뷔페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227-9500 |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57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대표이사 최금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일본**

겨울을 일본에서~~

- ★ 북큐슈 야마나미 통나무 펜션 (벃부족탕체험) 4일 ₩ 429,000 출발일: 2/5,8,11,13,16,20
- ★ 구중산 스키유 마을 전통로칸 숙박 4일 ₩ 569,000 출발일: 1/30, 2/26
- ★ 일본에서 만나는 네덜란드 테마파크 하우스템보스 4일 ₩ 599,000 (불포함사항: 부산출도착) 출발일: 1/25
- ★ 부산에서 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4일 4일 ₩ 1,090,000 출발일: 1/24

1월 한달만. 무안에서 떠나는 꿈!!

3박 4일 **특가 ₩799,000**

출발일: 1/18,22,26

- ★ P.I.C. GOLD OCEANA <슈퍼리아> ₩1,399,000~
- ★ ROYAL TOWER <더릭스> ₩1,499,000~
- ★ 광레오필레스 골프 54H ₩1,499,000~
- ★ 광 고품격 골프 36H (NIKKO or HILTON HOTEL) ₩1,499,000~

불포함사항: 유류할증료, 가이드 팁, 중식(골프-2일,3일)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여행), 1인당,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세(법인),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예약시 계약서(주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주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